

주요개념 : 기질, 학령전기, 양육태도

어머니가 지각한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과 관련 요인

방 경 숙*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이끌어주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동의 특성 중 중요한 한 개념으로 기질(temperament)이 제시되고 있는데, 기질이란 행동 양상으로서, 행동의 내용이나 동기가 아니라 행동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최성구, 김승태, 이소영, 정유숙, 홍성도, 김이영, 1999),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개인적인 특질이라 할 수 있다(Coffman, Levitt, Guacci & Silver, 1992).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정신 의학이나 심리학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김종훈(1997)은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기질의 개념이 이론 및 임상적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러한 기질 특성은 심리적 발달뿐 아니라 신체성장 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최성구, 홍성도, 김승태, 1997), 이후의 사회적 적응도나 문제 행동과도 관련 있음이 제시되고 있어(최영희, 1990; 김광웅, 이미애, 1995), 조기에 바람직한 기질 형성을 위한 중재 개발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한다.

기질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Houldin(1987)은 아동의 기질은 출생 시부터의 고유한 기본 요소도 있으나,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보는 견해에 따라 부모나 가정환경 내에서의 영향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Chess(1997)도 기질은 생물학적 근원과 환경적 근원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다고 하여 기질이 타고나는 측면도 있지만 환경적 요소에 의해 변화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을 다루는 간호학 분야에서도 기질은 대상자 이해와 양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몇몇 연구가 시행되기도 하였다(방경숙, 2001; 한경자, 방경숙, 2000; 방경숙, 전경자,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
교신전자 : ksbang@ajou.ac.kr

2002; 이영은, 강양희, 박혜선, 황은주, 문미영 2003).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영아기에 대한 기질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후의 아동 기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학령전기는 아직 또래와의 관계보다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발달단계로서, 이 시기의 기질을 부모 및 가정적 요인과 연관지어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식적인 집단활동이 시작되는 학령기 이후에는 또래나 교사의 영향도 점차 증가하게 되어 일반적 특성 및 부모의 특성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며, 학령전기의 기질 양상에 따라 이후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상태나 행동문제 등을 연관지어 살펴보기 위해서도 우선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일차적 환경은 부모라고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행동양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Benasich & Brooks-Gunn, 1995; 표미정, 1997; 안현숙, 2000). 또한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최영희(1995)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성, 즉 자신의 능력과 빈곤에 대한 불안이 낮을 때 자녀에게 애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문혁준(2001)은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만족할수록 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박성연 등(199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부모역할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가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중요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외에 부모의 특성으로는 양육태도 및 양육부담감을 관련지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Meyerhoff(1995)는 새로이 부모가 된 이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기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부모교육이 절대적으

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간호에서도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은 최근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동의 기질에 대한 이해가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을 살펴보고, 부모 및 아동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기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봄으로써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한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유형이 어떠한지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하부영역별 기질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 3) 어머니의 양육부담감과 학령전기 아동의 하부영역별 기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어머니의 하부영역별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하부영역별 기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12명 이었다. 편의 표출로 인한 대표성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울 특별시 2개구와 광역시인 대전시 2개구, 그리고 중소도시인 수원시 2개구에 소재한 유아원 각 1곳씩, 총 6개 유아원을 선택하여 유아원생 어머니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사항

인구사회학적 변수, 돌보아 주는 사람, 탁아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용하였다.

2) 아동의 기질

Thomas와 Chess(1977)에 의해 개발된 만 3-7세 유아의 기질 검사도구(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for children 3-7 years of age)를 원영미(1989)가 번안하고 권기남(1999)이 종일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한 부모용 유아기질 검사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9가지 기질 범주에 대한 72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권기남(1999)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6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기질분류는 Gordon(1981)의 연구에 근거한 것으로, 기질 범주 중에서 적응성, 접근-회피성, 규칙성 및 기분상태에 있어서 상위 1/3 집단에 속하며, 반응 강도에 있어서는 하위 1/3 집단에 속하는 유아를 순한 기질로 간주하되, 순한기질의 특징 중 적어도 세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순한 기질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적응성, 접근-회피성, 규칙성 및 기분상태에 있어서 하위 1/3집단에 속하며, 반응 강도에 있어서 상위 1/3집단에 속하는 유아를 까다로운 기질로 간주하되, 까다로운 기질의 특징 중 적어도 세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까다로운 기질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

Schaefer와 Bell(1959)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는 본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귀영(1998)이 이중 4개 영역만을 선택하여 영역별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애정적, 긍정적 평가,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중 거부적, 통제적 영역은 점수를 역산하여 수용적, 자율적 태도를 나타내도록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태도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5였다.

4) 양육부담감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측정하는 양육 부담감은 한경자 등(2001)의 자녀돌보기 부담감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의 5점 척도이며 도구 개발자가 보고한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였다.

4. 자료수집절차

먼저 서울, 대전, 수원의 유아원 중 각 2곳씩에서 기관장에게 연구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얻었다. 선택된 유아원의 만 3세-6세 유아의 가정에 통신문과 함께 설문지를 발송하여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에 답하게 하였으며, 설

문지는 유아를 통해 다시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으며, 설문지 3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237부중 응답이 불성실한 25부를 제외하고 21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연구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1.5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질 유형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질 영역별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기질과 양육부담감, 기질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기질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나이는 만 4세와 5세가 79.1%를 차지했으며, 성별은 남아 48.6%, 여아 51.4%로 비슷한 비율이었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50.8%로 반수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모두 전문대 및 대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44.3%였다. 가족의 월수입은 대부분 200만원 이상이었으며, 4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8%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0.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표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전 아동의 기질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유형
아동의 기질은 순한기질,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미분류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순한기질에 해당하는 학령전기 아동은 41명(19.4%), 까다로운 기질 61명(28.9%), 그리고 미분류 109명(51.7%)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질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12)

변수	구분	실수(%)
유아 나이(세)	3	24(11.4)
	4	87(41.2)
	5	80(37.9)
	6	20(9.5)
성별	남아	103(48.6)
	여아	109(51.4)
출생순위	첫째	105(50.8)
	둘째	92(43.6)
	셋째이상	14(6.6)
	고졸이하	62(29.4)
어머니 학력	전문대, 대졸	122(57.8)
	대학원재학이상	27(12.8)
	고졸이하	35(16.7)
	전문대, 대졸	131(62.4)
아버지 학력	대학원재학이상	44(21.0)
	없음	117(55.7)
	있음	93(44.3)
가족 월수입(만원)	150미만	13(6.2)
	150-200미만	31(14.7)
	200-300미만	60(28.4)
	300-400미만	48(22.7)
	400이상	59(28.0)
가족형태	핵가족	170(80.2)
	확대가족	42(19.8)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기질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의 하부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자는 여아보다 활동적이었다. 다음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 아동의 적응성은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유형 차이

변수	구분	기질			X ²	p
		순한기질 (n=41) n(%)	미분류 (n=109) n(%)	까다로운기질 (n=61) n(%)		
유아 나이(세)	3	3(12.5)	14(58.3)	7(29.2)	9.100	.168
	4	12(13.8)	44(50.6)	31(35.6)		
	5	20(25.0)	39(48.8)	21(26.3)		
	6	6(30.0)	12(60.0)	2(10.0)		
성별	남아	22(21.6)	46(45.1)	34(33.3)	3.446	.179
	여아	19(17.4)	63(57.8)	27(24.8)		
출생순위	첫째	22(21.0)	54(51.4)	29(27.6)	.367	.832
	둘째이상	19(18.1)	54(51.4)	32(30.5)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0(16.4)	35(57.4)	16(26.2)	2.283	.684
	전문대, 대졸	25(20.5)	63(51.6)	34(27.9)		
	대학원재학이상	6(22.2)	11(40.7)	10(37.0)		
어머니 직업	없음	22(18.8)	63(53.8)	32(27.4)	.761	.683
	있음	19(20.7)	44(47.8)	29(31.5)		
직업유무 만족	만족	31(20.7)	73(48.7)	46(30.7)	.542	.762
	불만	8(16.7)	26(54.2)	14(29.2)		
가족 월수입(만원)	200미만	10(22.7)	22(50.0)	12(27.3)	1.679	.947
	200-300미만	9(15.3)	31(52.5)	19(32.2)		
	300-400미만	10(20.8)	23(47.9)	15(31.3)		
	400이상	12(20.3)	32(54.2)	15(25.4)		
가족형태	핵가족	36(21.3)	82(48.5)	51(30.2)	3.619	.164
	확대가족	5(11.9)	27(64.3)	10(23.8)		

낮고, 기분상태는 좋았다.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확대가족의 아동은 핵가족의 아동보다 활동성과 반응강도가 높았다. 그 외에는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3>.

3. 기질과 양육부담감의 상관관계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영역별 기질 차이

변수	구분	활동성	t or F(p)	규칙성	t or F(p)	접근성	t or F(p)
유아 나이(세)	3	32.91±5.58	1.026	37.22±5.73	.390	34.13±4.69	1.826
	4	31.11±6.42	(.382)	37.67±5.45	(.760)	33.42±6.99	(.144)
	5	30.44±6.06		37.93±6.01		34.76±6.97	
	6	30.40±6.08		39.00±5.02		37.20±7.11	
성별	남아	32.15±5.89	2.664	38.30±5.86	1.101	34.70±6.92	.685
	여아	29.91±6.25	(.008**)	37.43±5.42	(.272)	34.06±6.74	(.494)
출생순위	첫째	31.26±6.06	.673	37.98±5.61	.337	34.05±6.66	-.672
	둘째이상	30.68±6.31	(.501)	37.71±5.71	(.737)	34.69±7.02	(.503)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31.71±5.43	.619	37.21±6.13	.503	34.80±6.76	.854
	전문대, 대졸	30.63±6.52	(.539)	38.08±5.67	(.606)	34.54±6.56	(.427)
	대학원재학이상	31.19±6.17		31.01±6.18		32.81±8.10	
어머니 직업	없음	31.31±5.92	.880	37.69±5.68	-.458	34.76±6.15	1.072
	있음	30.55±6.49	(.380)	38.06±5.67	(.647)	33.74±7.57	(.285)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영역별 기질 차이(계속)

변수	구분	활동성	t or F(p)	규칙성	t or F(p)	집근성	t or F(p)
가족 월수입 (만원)	200미만	30.12±5.53	.545	36.84±6.21	1.546	35.39±7.53	1.448
	200-300미만	31.09±6.89	(.652)	37.71±5.47	(.204)	34.29±6.88	(.230)
	300-400미만	31.77±5.22		39.30±4.30		32.71±6.44	
	400이상	31.03±6.57		37.60±6.20		35.00±6.44	
가족형태	핵가족	30.52±5.89	4.78	37.73±5.54	.363	34.21±6.58	.437
	확대가족	32.83±6.97	(.030*)	38.33±6.05	(.548)	35.00±7.76	(.509)
변수	구분	적응성	t or F(p)	반응역	t or F(p)	반응강도	t or F(p)
유아 나이(세)	3	40.36±4.03	.431	23.96±4.90	.446	30.46±6.37	.312
	4	41.35±5.20	(.731)	24.87±5.49	(.721)	30.31±6.49	(.817)
	5	41.35±5.46		25.49±6.39		29.86±6.48	
	6	42.20±5.86		25.20±5.96		28.90±6.34	
성별	남아	41.11±5.51	-.576	25.60±5.67	1.358	30.61±6.64	1.282
	여아	41.53±4.97	(.565)	24.50±5.92	(.176)	29.47±6.20	(.201)
출생순위	첫째	41.92±5.11	1.539	24.73±6.23	-.717	29.43±6.38	-1.356
	둘째이상	40.79±5.31	(.126)	25.31±5.40	(.474)	30.64±6.47	(.177)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41.18±5.79	.142	24.47±6.42	.675	30.82±6.60	.744
	전문대, 대졸	41.47±5.07	(.868)	25.00±5.65	(.511)	29.79±6.56	(.476)
	대학원재학이상	40.93±4.97		26.04±4.93		29.22±5.48	
어머니 직업	없음	42.04±4.52	2.326	24.67±5.65	-.816	29.85±5.99	-.513
	있음	40.33±5.93	(.021*)	25.34±5.97	(.416)	30.32±6.98	(.608)
가족 월수입 (만원)	200미만	41.16±5.15	.254	25.98±6.00	1.548	30.55±5.74	1.625
	200-300미만	41.77±5.18	(.859)	24.24±6.93	(.203)	31.31±6.33	(.185)
	300-400미만	40.89±5.65		24.06±4.13		29.56±6.96	
	400이상	41.34±5.12		25.83±5.53		28.85±6.47	
가족형태	핵가족	41.30±5.31	.024	25.10±5.92	.096	29.43±6.29	7.274
	확대가족	41.44±5.00	(.877)	24.79±6.59	(.757)	32.38±6.48	(.008**)
변수	구분	기분상태	t or F(p)	주의 전환	t or F(p)	집중지속	t or F(p)
유아 나이(세)	3	36.48±3.50	2.108	38.88±4.94	.298	33.83±3.10	1.408
	4	36.51±3.79	(.100)	38.22±5.86	(.827)	33.84±4.37	(.242)
	5	36.35±4.35		37.68±5.95		35.13±5.15	
	6	38.80±4.15		38.35±6.41		35.16±4.10	
성별	남아	36.19±4.04	-1.642	37.70±5.94	-.992	34.51±4.89	.200
	여아	37.11±4.02	(.102)	38.50±5.71	(.322)	34.38±4.25	(.841)
출생순위	첫째	36.57±4.22	-.332	38.62±5.82	1.240	34.36±4.83	-.264
	둘째이상	36.76±3.91	(.740)	37.62±5.84	(.216)	34.53±4.30	(.792)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36.81±3.92	.289	38.68±6.49	.736	33.66±4.58	1.714
	전문대, 대졸	36.76±4.13	(.749)	38.12±5.77	(.480)	34.93±4.76	(.183)
	대학원재학이상	36.15±3.94		37.04±4.28		34.04±3.36	
어머니 직업	없음	36.14±3.99	-2.031	38.07±5.97	-.114	33.92±4.46	-1.799
	있음	37.30±4.09	(.044*)	38.16±5.73	(.909)	35.07±4.65	(.074)
가족 월수입 (만원)	200미만	36.67±4.06	.431	38.18±6.33	.099	33.72±3.78	1.612
	200-300미만	36.15±4.31	(.731)	37.86±5.44	(.961)	35.10±5.16	(.188)
	300-400미만	36.70±3.42		37.85±5.95		35.15±3.85	
	400이상	36.98±4.11		38.36±5.78		33.75±4.90	
가족형태	핵가족	36.60±4.20	.245	38.01±5.64	.248	34.44±4.32	.001
	확대가족	36.95±3.37	(.621)	38.51±6.59	(.619)	34.46±5.48	(.977)

<표 4> 기질의 하부영역과 양육부담감의 상관관계

(N=212)

	활동성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역	반응강도	기분상태	주의 전환성	집중력 및 지속력
양육부담감	-.016	-.120	-.221**	-.243**	-.058	.073	-.292**	-.162	-.077

**p <.01

<표 5> 기질의 하부영역과 양육태도 하부영역간의 상관관계

(N=212)

	활동성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역	반응강도	기분상태	주의 전환성	집중력 및 지속력
애정적	.005	.170*	.215**	.229**	-.157*	-.050	.287**	.120	.202**
긍정적 평가	.003	.019	.311**	.167*	.062	-.070	.131	.085	.104
수용적	-.021	.138	.206**	.242**	.031	-.179*	.293**	.078	-.041
자율적	.036	-.117	-.190**	-.044	.104	-.007	-.145*	-.006	-.190**
총점	.011	.101	.188**	.236**	-.004	-.117	.282**	.151*	.051

*p <.05, **p <.01

학령 전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접근성, 적응성, 기분상태는 양육부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4>.

4. 기질과 양육태도의 상관관계

기질의 하부 영역과 양육태도의 하부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활동성은 양육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규칙성은 애정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접근성 및 적응성은 애정적, 긍정적, 수용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반응역은 애정적 태도와, 반응강도는 수용적 태도와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분상태는 애정적, 수용적 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집중지속력은 애정적 태도와 정적, 자율적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5>.

IV. 논 의

아동의 기질은 선천적인 면도 있으나 아동을

둘러싼 환경, 특히 부모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 특성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 유형 분류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이 없었는데, 이는 까다롭거나 순한 기질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논의 점이 있음을 제기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Gordon의 분류에 따라 적응성, 접근-회피성, 규칙성 및 기분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최영희(1997)는 까다로운 기질의 구성요인을 활동성, 규칙성, 기분, 지구성(집중지속성)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기질 유형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이 파악되지 못한 것은 까다로운 기질 집단 분류에 대한 기질 영역의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가지 기질의 하부 영역별로 영향주는 요인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질 측정도구의 Cronbach alpha는 .66으로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문항이 많아 어머니들이 성실하게 답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본 연구의 제한점의 하나로서 결과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뉴욕종단연구를 통해 아동의 기질에 대한 연구로 인정받고 있는 Thomas와 Chess(1977)는 기질을 활동성(activity level), 규칙성(rhythmicity), 접근-위축(approach-withdrawl), 적응성(adaptability), 반응역(threshold of reaction), 반응강도(intensity of reaction), 기분상태(quality of mood), 주의전환성(distractibility), 집중력 및 지속력(attention span-persistence)의 9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9가지 영역별 기질을 관련 변인과 연관지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질의 하부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아는 여아보다 활동적이었다. 이는 최지현(2001)의 47세 아동의 기질에 대한 연구나 이강호(1999)의 연구에서도 남아는 여아보다 활동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최지현의 연구에서는 적응성,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그리고 이강호(1999)의 연구에서도 반응역, 기분상태, 주의전환성과 같은 여러 영역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그 외의 영역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 아동은 적응성은 낮고, 기분상태는 좋았으며($p < .05$), 유의수준 $p < .10$ 에서는 집중지속력도 더 높았다. 아동의 기분상태는 특히 어머니의 기분상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특성으로 생각되는데,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이 전업주부 어머니들보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기분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강호(1999)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유아는 기분상태와 집중지속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동의 적응성이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보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왜 더 낮은가에 대해서는 숙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연구들을 찾기 어려워 논의하기에 어

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확대가족의 아동은 핵가족의 아동보다 활동성과 반응강도가 높았다. 확대가족의 아동은 여러 성인 가족들과의 접촉 기회가 많아 활동의 기회가 증진되며, 여러 가족 중에 있으면서 자기표현을 강하게 하게 되어 반응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가족형태에 따른 유아의 기질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강호(199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학령 전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접근성, 적응성, 기분상태는 양육부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양육부담감을 높게 느끼는 어머니의 자녀는 사람들에게 잘 접근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적응력이 떨어지고 기분상태도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는 부모의 정신건강은 아동의 기질 특성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Lockwood, 1983, 최영희, 1995에 인용됨; 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데(Benasisch & Brooks-Gunn, 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기질은 서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경자, 방경숙, 2000; 최지현, 2001). 본 연구에서도 기질의 하부 영역과 양육태도의 하부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규칙성은 애정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최지현(2001)의 연구에서도 남아의 규칙성은 애정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아동의 기질이 규칙적인 경우는 아동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돌보기가 수월할 것이며 따라서 어머니도 애정적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분상태는 애정적, 수용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최영희(1995)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기분상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기분은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접근성 및 적응성은 애정적, 긍정적, 수용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한 아동은 전반적인 신뢰감이 형성되어 위축됨이 없이 새로운 것에 더 잘 접근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질 영역이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의 젊은 어머니들에서 흔히 보여지는 한 현상으로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제가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 오히려 자녀에게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반응역은 애정적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어머니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은 주위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질을 지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이의 반응역치가 낮다는 것은 까다로운 기질을 나타내는 한 구성요소인데, 순한 기질의 아이에게 애정적 태도를 더 많이 보인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에게 더 애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상반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미래 연구를 바탕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응강도는 수용적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아이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며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지 않고 아이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반응강도가 낮아도 어머니가 아이의 요구를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주기 때문에 반응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집중지속력은 애정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지현(1999)의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반응성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냈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부담감, 취업유무, 그리고 가족형태 등 아동을 둘러싼 일차적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나 가족의 월수입 등보다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돌보고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 형성에 있어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라 하겠으며, 바람직한 아동의 기질 형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만 3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12명을 서울, 대전, 수원에서 편의 표출하였으며, Thomas와 Chess(1977)에 의해 개발된 만 3-7세 유아의 기질 검사 도구(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for children 3-7 years of age)를 권기남(1999)이 번안한 도구와 Schaefer와 Bell(1959)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 도구(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장귀영(1998)이 번안한 도구, 그리고 한경자 등(2001)의 자녀돌보기 부담감 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연구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1.5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기질 유형(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미분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질의 하부 영역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적이었으며,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 아동의 적응성은 낮고, 기분상태는 좋았다. 또한 확대가족의 아동은 핵가족의 아동보다 활동성과 반응강도가 높았다.
3. 학령 전 아동의 접근성, 적응성, 기분상태는 어머니의 양육부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기질의 하부 영역과 양육태도의 하부 영역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활동성은 양육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규칙성은 애정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접근성 및 적응성은 애정적, 긍정적, 수용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반응역은 애정적 태도와, 반응강도는 수용적 태도와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분상태는 애정적, 수용적 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집중지속력은 애정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은 아동의 성별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부담감, 취업유무, 그리고 가족형태 등 아동을 둘러싼 일차적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긍정적 기질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권기남 (1999). 유아의 성별 및 기질에 따른 동화

선호도: 낭만적, 폭력적 및 무서운 그림동화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광웅, 이미애 (1995). 아동의 기질과 부모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생활과학연구지, 10, 109-125.

김종흔 (1997). 임상적 측면에서 본 기질이론. 윤인정신의학보, 4(1), 21-37.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방경숙 (2001). 영아기질 측정도구(WBL)의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부모자녀건강학회지, 4(2), 32-42.

방경숙, 전경자 (2002).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영아기 기질 비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5(1), 50-61.

안현숙 (2000).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교육, 9(1), 93-102.

이강호 (1999).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수유방식이 아동의 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은, 강양희, 박혜선, 황은주, 문미영 (2003).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기질과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9(2), 206-220.

장귀영 (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공격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성구, 홍성도, 김승태 (1997). 아동의 기질특성과 신체발육 사이의 관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8(1), 43-49.

최성구, 김승태, 이소영, 정유숙, 홍성도, 김이영 (1999). 아동 기질에 대한 부모 설문지의 한글

-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38(1), 201-210.
- 최영희 (1995). 유아 기질과 어머니 심리적 안정성의 양육태도 설명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5), 187-196.
- 최영희 (1997). 아동기의 까다로운 기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99-109.
- 최지현 (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아동교육, 10(1), 133-146.
- 표미정 (1997). 유아의 기질과 양육태도 및 유치원 문제행동 관계. 아동교육, 6(2), 105-117.
- 한경자, 방경숙 (2000). 영아 기질과 모아상호작용, 양육환경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6(2), 132-143.
- 한경자, 방경숙, 윤순영 (2001).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운영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결과분석: 서울시 일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1), 49-59.
- Benasich, A. A., & Brooks-Gunn, J. (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rearing: associations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3), 1186-1205.
- Chess, S. (1997). Temperament: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Harvard Mental Health Letter, 14(5), 5-7.
- Crockenberg, S. B. (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giving? In J. V. Lerner & R. M. Lerner(Eds.),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infant and children. Jossey-Bass.
-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207-215.
- Gross, D., & Conrad, B. (1995). Temperament in toddlerhood.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0(3), 146-151.
- Houldin, A. D. (1987). Infant temperament and the quality of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31-143.
- Melvin, N. M., & McClowry, S. G. (1995). Clinical applications of children's temperamen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0(3), 139-140.
- Meyerhoff, M. K. (1995). Infant temperament- Perspective on parenting. Pediatrics for parents, 16(8), 8-9.
- Schafer, E. S., Bell, R. Q., & Bayley, N.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Publishers.
- Thomas, A., & Chess, S. (1983).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action. In W. Damon (Ed.),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Y: W. W. Norton & Company.

ABSTRACT

Key Words : Temperament, Preschooler, Childrearing attitude

Mothers' Perceived Temperament of Their Preschoolers and its Related Factors

Bang, Kyung-Sook*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mothers' perceived temperament of their preschoolers, and its related factors. Survey from 212 mothers of preschoolers residing in Seoul, Daejeon, and Suwon was performed, and Schaefer's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and PTQ(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by Thomas and Chess, Child-rearing burden instrument by Han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September 15 to October 31, 2002. Data was analyzed with SPSS 10.0 Win program.

Summaries of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emperament type-easy or difficult child-depending up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In temperament subscale, boys showed higher activity level than girls, and in working

mothers group, adaptability was significantly lower although mood was higher. Preschoolers with expanded families were higher in activity level and intensity of reaction than with nuclear families.

3. Approach-withdrawal, adaptability, and mood showed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maternal childrearing burden.
4. Temperament showed significant positive or negative relationship with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In conclusion, it determined preschoolers' temperament was affected by primary environment such as maternal attitude, childrearing burden, and family type as well as children's gender. It was suggested that parent education and counselling program in nursing would be needed to promote children's desirable temperament.

* Ajou University,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rresponding author : ksbang@ajou.ac.kr